



2013 상표·디자인권전 성료

상표디자인주간 맞아 다양한 국제 행사 개최

2013 상표·디자인권전시회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201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이라는 큰 틀안에 상표·디자인권전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또한 특허청은 12월 첫째 주를 '2013 한국상표 디자인 주간'으로 정하고 국제컨퍼런스, 국제심포지엄, 국제회의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8번째로 개최된 상표·디자인권전시회는 기업의 중요 자산인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알기쉬운 상표 디자인권 설명관 ▲비영리권 브랜드 지원 사업관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관 ▲상표디자인권 트렌드관 ▲미투상품관 ▲융복합 우표디자인 전시관 ▲국제대회 마스코트 전시관 등으로 조성됐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포츠 체형 게임, 크리스마스 엽서 미리보내기,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미투상표 찾기 게임 등이 부대행사로 열렸다.

우수상표권 공모전에서는 'venygood'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큐티플', '잘크톤',

'밀아리', '큐릭', 'nuga?com' 등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47점의 상표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다양한 실제 사례 소개로 일반인 이해 도와

'알기 쉬운 상표·디자인권 설명관'에서는 상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인의 상표등록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개인상표로 소개된 방송인 노홍철씨는 캐릭터와 얼굴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해 온라인쇼핑몰 '노홍철닷컴'을 통해 티셔츠, 양말, 모자 등을 공급하고 있다.

'미투상품관'에서는 '나도 똑같이'라는 의미로 1위 브랜드나 인기브랜드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스타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미투상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상표권 소송 결과를 소개했

다. 대표적인 미투상품으로는 스타벅스 더블샷과 남양유업 더블샷, CJ 쇠고기 다시다와 대상 쇠고기 잔국다시, 롯데 자일리틀과 해태 자일리틀, 오리온 초코파이와 롯데 초코파이 등이 있다.

'상표·디자인권 트렌드관'에서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소개했다. 콜라보레이션은 각기 다른 분야의 기업 또는 유명한 예술 전문가들과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 벨킨 콜라보레이션, 동화약품 촬영수 116주년기념 한정판 패키지, 코리아나서 인영=엣지핏, 카프리 아트 콜라보레이션, 완자, 한권으로 끝내기 등이 소개됐다.

상표·디자인 주간 국제행사 '풍성'

12월 2일 상표·디자인권전사회이 끝난 이후에는 서울국제상표·디자인컨퍼런스, WIPO-KIPO 헤이그·마드리드 국제심포지엄, 상표 분야의 선진 5개국 회의체인 TM5 연례회의가 잇따라 개최됐다.

'서울국제상표 디자인컨퍼런스'는 지난 12월 3일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와 국제상표협회(INTA) 공동 주최로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창조경제에서 브랜드와 디자인의 가치'라는 주제로 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국제 지식재산제도와 WIPO의 역할', Antonio Campinos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이 '유럽연합에서 상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인 Abercrombie

& Fitch사의 Holger Kunz 이사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전략', 삼성전자 장동훈 부사장이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WIPO-KIPO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12월 4일 특허청과 WIPO 공동주최로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헤이그,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한 해외상표 디자인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출원에 대한 WIPO 심사기준 및 보정방법, 헤이그협정 이행을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내용, 헤이그 시스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헤이그 심포지엄'과 마드리드 제도 발전 개요 및 향후 발전방향, 마드리드 제도의 성공적인 이용사례를 소개하는 '마드리드 심포지엄'으로 진행됐다.

'TM5 연례회의'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호텔에서 유럽상표디자인청

(OHIM) 청장, 미국특허상표청(USPTO) 차장 등 TM5의 상표분야 고위급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및 유저그룹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국의 상표 및 상품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TM-View 및 TM-Class사업, 5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구축사업, 악의적 모방출원 방지방안 등 기존의 9개 협력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상표분야의 선진 5개국 회의체인 TM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회의(TM3)로 시작해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다. ↻



1. 상표·디자인권전 행사장 전경 2. 개인상품 노홍철 3. 서울국제상표·디자인컨퍼런스 4. WIPO-KIPO 헤이그·마드리드 국제심포지엄
5. 상표·디자인권전에 전시된 미투상품 6. TM5 연례회의 7. 상표·디자인권전 트렌드관